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표현방식의 관계

오 지 현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406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단순 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특성분노가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분노억제와 분노표출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노억제의 경우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형과 초이성형이, 분노표출의 경우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이 분노통제의 경우엔 회유형과 초이성형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특성분노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직·간접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에 간접효과를 주는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초이성형은 분노억제를, 비난형은 분노표출 방식으로 이어지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특성분노 영향력이 분노표현방식의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특성분노, 분노표현방식, 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서울상담심리 평생교육원 시간강사(E-mail: maple282@nate.com)

I. 서론

청소년기는 정서의 변화가 빠르고 강하며,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적 경험은 정서·행동적 문제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다. 청소년기의 주요 심리적 특징 중의 하나가 정서적 격렬함 또는 동요와 관련된 것이라면 정서 조절의 문제는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의 내용 중에서도 분노는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기본 감정이다(Averill, 1983).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서 분노충동이 오래 지속되며(이은순, 1998), 신체 변화 및 심리적 동요 등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분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런 정서이지만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사회적 부적응 경험을 동반하게 된다. 즉, 청소년의 비행, 학교 폭력, 가출 등의 대표적 부적응 문제 기저에는 통제 및 조절되지 못한 분노표현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지영, 최정윤, 2000; 신미영, 김재환, 2001; 채유경, 2001; Larson, 199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 억제 방식은 우울, 불안, 신경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높고(이규미, 1999; 주지영, 2005; Gross & John, 2003), 분노 표출 방식은 학교생활 부적응(김광수, 2003), 공격성 및 과잉행동화(신미영, 김재환, 2001)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노정서는 얼마나 자주, 강하게 분노를 경험하는가를 반영하는 개인적 성격 특질인 특성분노가 분노표현 및 조절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즉,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보다 많은 상황을 분노 유발상황으로 지각하여 높은 분노 상태로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다(Deffenbacher, Demm, & Brandon, 1986; Spielberger, 1980; Spielberger et al., 1983). 이러한 특성분노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분노의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고(이미리, 2009), 부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은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요컨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분노 정서에 대하여 표출 및 통제 하는 등의 표현방식의 습득은 건강한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개인적 성격 특질인 특성분노는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분노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자주 경험되는 정서이기 때문에(권혜진, 1991; 이규미, 1999) 사회관계적 맥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는 밀접한 관계이며 정서·사회성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미시 체계 맥락으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요인이다. 청소년기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전 시기보다 소원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정도에 따라 공격성과 분노 조절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김재엽, 정윤경, 2007; 이진술, 2007; Diamond & Aspinwall, 2003; Kobak et al., 1993)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적절한 통제 및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높고,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나유미,

임연진, 2003; 박진경, 도현심, 2001).

이렇듯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분노 조절 및 부적응 문제에 어머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되면서 어머니와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시점이기도 하다(Juang, Lerner, Mckinnery & Eye, 1999). 즉,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의 욕구와 성급한 자율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머니들의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부족은 청소년기 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박희숙, 하정희, 2007).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해 최근 각기 다른 맥락에서 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은 분노 억압과 분노 표현을 덜하며 분노를 잘 통제하고 비행행동을 보다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숙, 하정희, 2007; 양운일, 2005). 즉, 부모-자녀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분노를 억압하지 않고 통제하며 비행행동을 줄이는 등 자녀의 적응에 보다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일 때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통제 또한 가능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모-자녀관계에서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욕구 불만 및 불만족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는 부적절한 분노 표현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자녀 의사소통은 그들 간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표현을 통해 공통의 이해를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작용적 행동이다(Satir et al, 2000). 즉, 자녀의 개인적 특질인 특성분노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수준은 또 다시 자녀의 분노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거쳐 분노표현 방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부모관련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 변인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상담 개입에 보다 유용하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의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데(이규미, 1999; Eisenberg, 2001), 이는 성차의 양상에 있어서 일관성이 적어 지속적인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본 연구 또한 연구문제 분석 전에 성차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의 특성분노는 분노표현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통해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직·간접 경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청소년의 분노 정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이미리, 2009)와 분노 정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공격적 일탈 문제 행동에 있어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비율이 높은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 조사 연구 결과들(문용린, 2008;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08)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지역의 중학교 2, 3학년과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의 남, 여학생 420명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중 모-자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 목적에 맞게 부자가정인 14명을 제외한 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본 연구에서는 심혜숙과 이상순(1998),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2004)에서 제작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척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고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재구성한 추미례와 김정희(2008)의 역기능적 의

표 1. 일반적 특성 (N= 420)*

구 분		n (%)
성별	남	240(57.1)
	여	180(42.9)
학년	중학교 2학년	157(37.4)
	중학교 3학년	148(35.2)
	고등학교 1학년	115(27.4)
가족 관계	모두 계신다	392(93.3)
	아버지만 계신다	14(3.3)
	어머니만 계신다	14(3.3)
	모두 안 계신다	-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28(6.7)
	고등학교졸업이하	245(58.3)
	전문대 졸업	14(3.3)
	대학교 졸업이상	119(28.3)
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28(16.1)
	40 ~ 50세 미만	298(74.9)
	50세 이상	36(9.0)
생활 정도	아주 못 산다	2(5)
	못 사는 편이다	43(10.2)
	중간이다	310(73.8)
	잘사는 편이다	55(13.1)
	아주 잘 산다	7(1.7)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	50(11.9)
	150 ~ 250만원	99(23.6)
	250 ~ 350만원	96(22.9)
	350 ~ 450만원	57(13.6)
	450 ~ 550만원	55(13.1)
	550 ~ 650만원	22(5.2)
	650 ~ 750만원	14(3.3)
	750 ~ 850만원	3(7)
	850만원 이상	143(3)

주. *무응답에 따라 변인의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사소통 유형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미례와 김정희(2008)의 질문지를 청소년이 보고할 수 있게끔 수정한 후 5인의 청소년 관련 전공 전문가(박사 3인, 교수 2인)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두 명 이상이 문항의 적절성을 보통이하로 평정한 기존 질문지의 3번과 9번문항을 삭제하였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22번 문항의 문장을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총 문항 수는 23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하위요인은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회유형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또한 초이성형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면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과소평가하고 상황만을 중시하며, 산만

형은 주제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타인,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성향을 나타낸다. 즉, 각 하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부모가 그 유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주로 보이고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다.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특성분노 및 분노 표현 방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등(Spielberger, Johnson, Russel Crane, Jacobs & Worden, 1985)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검구(1996), 이영식과 조주연(1999)이 한국 청소년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 이는 특성분노와 분노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상태, 특성분노는 각각 10 문항, 분노 대처 방식은 총 24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한다.

STAXI-K에서는 분노 경험 수준으로 상태분노, 특성분노를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얼마나 자주, 강하게 분노를 경험하는가를 반영하는 분노 경향성만을 알아보고자 특성분노 질문지만을 활용하였다. 본 질문지에서의 분노 대처방식은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분노 표출은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욕하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과 같이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정도를 측정하고, 분노 억제는 화는 나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표 2. 측정도구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회유형	7	.74
	비난형	7	.85
	초이성형	5	.70
	산만형	6	.77
특성분노		10	.85
분노표현 대처방식	분노 억제	8	.79
	분노 표출	8	.78
	분노 통제	8	.79

않는 정도를 측정하며, 분노 통제는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속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즉, 각 하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상황 시에 이러한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측정도구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부는 각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학교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교사에게 질문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보내고 전화로 교사에게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분석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회귀분석, 단계적 회

귀분석(stepwise),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문제 분석 전에,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 여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주요 변인인 특성분노, 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분노표현방식의 관계 정도를 파악하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변인들끼리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분노억제,

표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방식 차이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SD)	t
특성분노	남	234	18.58 (5.85)	.52
	여	172	18.30 (5.13)	
분노억제	남	234	14.06 (4.21)	-1.83
	여	172	14.84 (4.26)	
분노표출	남	234	14.65 (3.96)	.81
	여	172	14.32 (4.15)	
분노통제	남	234	17.68 (4.63)	-.10
	여	172	17.73 (4.54)	

표 4.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분노표현방식의 상관관계 (N=406)

	1	2	3	4	5	6	7	8
1. 특성분노	-							
2. 회유형	.15**	-						
3. 비난형	.28***	.11*	-					
4. 초이성형	.27***	.38***	.42***	-				
5. 산만형	.24***	.31***	.63***	.39***	-			
6. 분노억제	.51***	.13**	.23***	.24***	.18***	-		
7. 분노표출	.63***	.15**	.27***	.23***	.18***	.51***	-	
8. 분노통제	.05	.21***	.07	.20***	.13***	.32***	.03	-

* $p < .05$, ** $p < .01$, *** $p < .001$

분노표출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하위요인과 분노표현방식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방식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비난형은 분노억제와 분노표출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특성분노($b=.39$, $p<.001$)는 분노억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분노의 전체 설명력은 26%($F=146.80$, $p<.001$)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표출에 대해 특성분노($b=.46$, $p<.001$)가 예측변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표 5.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N=406)

준거변인	b	r^2	F
분노억제	.39***	.26	146.80***
분노표출	.46***	.40	275.77***
분노통제	.04	.00	.91

*** $p < .001$

특성분노의 설명력은 40%($F=275.77$, $p<.001$)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특성분노는 분노통제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표 6. 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406$)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ΔR^2	R^2	F
분노억제	초이성형	.18***	.06	.06	25.20***
	비난형	.15***	.02	.08	8.34**
분노표출	비난형	.21***	.07	.07	30.95***
	초이성형	.10	.02	.09	7.29**
	회유형	.09	.01	.10	3.24
분노통제	회유형	.15**	.04	.04	18.25***
	초이성형	.15**	.02	.06	7.77**

* $p < .05$, ** $p < .01$, *** $p < .001$

었다. 이 때 단계적 회귀분석 시에 생기는 단점 즉, 제거되는 변인이 너무 많아지는 점을 보완하여 변인이 투입되고 제거되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15 수준으로 하여 보다 많은 변인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이성형, 비난형이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 억제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8%이다. 초이성형은($\beta=.18$, $p<.001$) 6% , 비난형이($\beta=.15$, $p<.001$) 2%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분노억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초이성형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비난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표출의 경우 비난형, 초이성형이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다. 비난형은($\beta=.21$, $p<.001$) 7%의 설명력을, 초이성형은(β

$=.10$, $p<.001$) 2%의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회유형이 유의 수준 .15 수준에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10%이다. 즉, 청소년의 분노표출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형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초이성형, 회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통제의 경우에는 회유형, 초이성형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6%이다. 회유형은($\beta=.15$, $p<.01$) 4%, 초이성형이($\beta=.15$, $p<.01$) 2%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분노통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초이성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

사소통 유형을 통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 관련이 있는 설명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분노표현방식을 설명하는 설명변량이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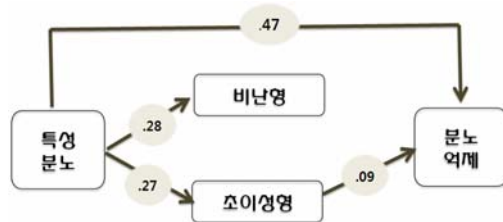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분노억제에 대한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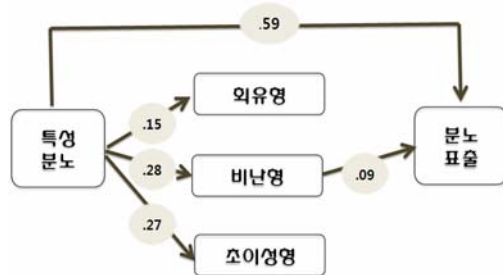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분노표출에 대한 경로모형

변수의 순서를 밝혀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유의미한 변인들과 특성분노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분노표현방식은 준거변인으로 하여 동시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나온 β 값과 표 5의 β 값을 기준으로 경로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경로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가 있는 모형을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7과 그림 1에 의하면 청소년의 특성분노는 분노억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beta = .47, p < .001$)과 동시에 분노억제를 설명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유형 중 초이성형($\beta = .09, p < .05$)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과 그림 2에 의하면 청소년의 특성분노는 분노표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beta = .59, p < .001$)과 동시에 분노표출을 설명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유형 중 비난형($\beta = .09, p < .05$)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직, 간접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초이성형/비난형	
분노억제	특성분노	.47	.02	.49
	비난형	-	-	-
	초이성형	.09	-	.09
분노표출	특성분노	.59	.03	.62
	외유형	-	-	-
	비난형	.09	-	.09
	초이성형	-	-	-

반면, 분노통제의 경우엔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간접효과를 살펴볼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연구문제 분석 전에, 청소년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살펴보았고,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녀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분노충동은 남, 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이규미, 1999; Eisenberg, 2001),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특성분노가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김광수, 2003)가 있다. 이는 분노충동수준에 있어서의 성차의 양상은 중학생시기에서만 나타났다고, 고1이 되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이미리, 2009)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특성분노, 분노 표현방식이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보고(김광수, 2003)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학년(연령)의 차이 없이 성차를 살펴보았는데 이로 인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연구에서 학년의 차이를 살펴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특성분노가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방식의 분노 대처를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특성분노가 높은 청소년들은 분노를 억제하거나 외부로 표출하는 대처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김광수, 2003; 신미영, 김재환, 2001)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부정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와 분노 표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신미영과 김재환(2001)은 정신과를 내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분노 통제력 또한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분노 통제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대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 설계상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는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분노표현방식 각각의 하위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억제의 경우엔 비난형과 초이성형이, 분노표출의 경우에 회

유형, 비난형, 초이성형이 분노통제의 경우엔 회유형과 초이성형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의 미비함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자녀는 부모들의 의사소통 양식을 학습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분노 정서를 느끼고 학습한다는 이론적 근거(Satir et al, 2000)로 논의 해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난형의 경우 다른 유형들보다 특성분노가 높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타인 비난 및 보복사고가 높으며 분노표출 경향이 높음을 밝힌 연구결과(추미레, 김정희, 2008)를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이 비난형일 경우 자녀를 비난하고 감정적으로 화를 표출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 역시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는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화가 났지만 억압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노억제 방식 역시도 비난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분노를 극히 억제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표출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노억제와 표출이 독립적인 단일차원이라는 연구 결과(Gentry, 1982)가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고, 비난형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동시에 보인다는 보고(추미레, 김정희, 2008)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회유형과 초이성형의 경우 분노를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추미레, 김정희, 2008)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의사소통 유형을 보이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 역시 유사한 분노표현 방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결과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중 초이성형은 분노표현방식의 모든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보이는 초이성형이 분노통제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는 하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특징인 점과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Satir et al, 2000). 즉, 초이성형 방식의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관계에서는 정서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는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느끼고, 다루는 것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초이성형은 분노 통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분노표현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요컨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 각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형들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소년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모-자녀 관계를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통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들의 직접·간접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경로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

사소통 유형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나타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초이성형 만이 분노억제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특성분노가 높은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감정을 배제한 채 논리와 이성만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 자녀 역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학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분노 상황에서 억압하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이성형을 보이는 성인이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추미레, 김정희, 2008)를 고려해 볼 때 초이성형 어머니는 분노의 내적 억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특히 이런 초이성형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는 분노억제방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나타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형 만이 분노표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성분노가 높은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 내리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분노 상황에서 분노표출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난형을 보이는 성인이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추미레, 김정희, 2008)를 고려해 볼 때 비난형 어머니는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특히 이런 비난형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는 분노표출방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요약하자면,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에 간접효과를 주는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초이성형은 분노억제를, 비난형은 분노표출 방식으로 이어지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특성분노 영향력이 분노표현방식의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성분노가 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개인적 특질인 특성분노 영향력이 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분노표현방식 하위요인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부모관련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분노감정에 대한 개입 시 특성분노인 개인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개입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질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의사소통 유형 관련 연구에서 의사소통 수준을 높다, 낮다 또는 개방형, 역기능형 등으로 단편적으로 구분했던 것과 달리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

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는데, 어머니와 자녀 간 지각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어머니가 보고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함께 측정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재검증 작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방법은 주관성을 배제하는데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보고나 전문가의 관찰 등을 통한 다양한 측정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한 정보를 얻고자 본래의 척도를 청소년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나 원 척도를 수정한 점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에는 연구대상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여 다양한 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노감정이 부적응적인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으며 임상군 집단과 비임상군 집단은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보고를 고려해 볼 때(서지영, 최정운, 2000) 연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2003). 청소년의 분노 수준, 분노 대처 방식과 학교생활 적응. *교육심리학 연구*, 17(3), 393-410.
- 김영애 (2004). 인간관계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사티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서울: 김영애 가족 치료 연구소.
- 김재엽, 정윤경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4(5), 169-197.
- 권혜진 (1991). 청소년의 분노. *중앙의대지*, 16 (특집호), 79-88.
- 문용린 (2008). 학교 폭력 시대 및 대처방안: 학교 폭력 10대 트렌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 안전 대책 세미나 자료집*.
- 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성 세대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 반응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19-140.
- 박희숙, 하정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 연구*, 18(2), 89-110.
- 변보기, 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9(3), 268-291.
- 서지영, 최정운 (2000).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특성분노와 분노반응양식(포스터 발표 초록).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46-247.
- 신미영, 김재환 (2001). 내원 청소년의 분노 표현 양식에 따른 MMPI 반응 특징. *한국 심*

- 리학회지: 임상, 20(2), 299-309.
- 심혜숙, 이상순 (1998). 심리경향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분석-Jung과 Satir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 유형 학회지, 5(1), 1-24.
- 양윤일 (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분노 표현방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리 (2009).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달과 자아 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맥락의 영향. 청소년 복지연구, 11(2), 127-143.
- 이은순 (1998). 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 이영식, 조주연 (1999).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의 표준화 연구. 한국 신경의학회지, 38(4), 794-804.
- 이장호, 한덕웅, 전검구,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2(1),
- 이진솔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검구 (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 (2). 재활심리연구, 3(1), 53-69.
- 주지영 (2005). 고등학생의 분노 표현 방식,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유경 (2001). 청소년 분노 표현 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추미례, 김정희 (2008). 대학생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특성 분노, 분노 사고 및 분노 표현에 대한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23-1039.
-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2008). 2007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2008).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User's Guide.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1145-1160.
- Berkowitz, L. (1990). On the in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 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 494-503.
- Diamond, L. M., & Aspinwall, L. G. (2003). Emotion 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an integrative perspective emphasizing self-regulation, positive affect, and dyadic process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125-156
- Deffenbacher, J. L., Demm, P. M., & Brandon, A. D (1986). High general anger: Correlates and treatment.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4, 481-489.
- Eisenberg, N. (2001). The core and correlates of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120-124.
- Gentry, W. D. (1982). Habitual anger-coping styles: 1. Effect on mean blood pressure and risk for essential hypertension. *Psychosomatic*

- Medicine*, 44, 195-202.
- Gross, J. J., & John, O. P. (1998). Mapping the domain of expressivity: Multimethod evidence for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71-191.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Juang, L. P., Lerner, J. V., Mckinnery, J. P., & Eye, A. (1999). The goodness of fit in autonomy timetable expectations between Asian-American lat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023-1048.
- Kobak, R., Cole, H., Fleming, W., Ferenz-Gillies, R.,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Satir, V., Banmen, J., Gerber, J., & Gomori, M (2000). 사티어 모델: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한국 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Spielberger, C. D. (1980). *Preliminary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scale(STAS)*. Tampa, FL: University of South Florida, Human Resources Institute.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e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pp.161-190). Hillsdale, NJ: Erlbaum.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e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5-30). New York: Hemisphere.

1차 원고접수 : 2010. 10. 05.

수정원고접수 : 2010.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3.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Trait Anger, Types of Mother-adolescent's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and Anger Coping Strategies

Oh, Ji hyun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it anger and mother-adolescent's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in terms of anger coping strategies (anger-suppress, anger-out, anger-control) as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406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by simple regression, stepwis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Our results indicated that (1)trait anger affected two components of anger coping strategies(anger-out, anger-suppress). (2)The mother's blaming type and super-reasonable type affected adolescents's variable of anger-suppress. The mother's placating type, blaming type and super-reasonable type affected adolescents's anger-out. Additionally, the mother's placating type and super-reasonable type affected adolescents's anger-control. (3)The result of path analysis revealed that trait anger affected anger-suppress of mother-adolescent's problems in terms of family communication, super-reasonable type, and trait anger affected the anger-out variable of mother-adolescent's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and blaming type.

Key words : Trait Anger, Anger Coping Strategies, Mother-adolescent's Type of 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